

「국가 경영과 방위산업 육성」 정책 토론회

- 방산 현실태 및 당면 문제점 도출로 향후 정책 방향 제시



새로

운 방위산업 육성정책을 제시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침체된 방위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방산정책 토론회가 구랍 12월 23일 캐피탈 호텔에서 열렸다.

이청남 방위사업실장을 비롯해 정부, 학계, 연구계, 방산업체 임직원 및 기타 방산관련 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국가 경영과 방위산업 육성」을 주제로 송자 명지대 총장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현안 정책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현안정책 보고서는 '97년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의뢰한 연구용역과제를 한국방위산업학회에서 전문가로 구성, 연구한 것이다.

각 연구 주제는 김형욱 홍익대 교수의 「방산 물자 수출 증진을 위한 지원체제 연구」, 김철환 국방대학원 교수의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정책 방향」, 유병태 한양대 교수의 「국방관리를 위한

창정비체계의 발전 방향」, 권기정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고등훈련기(KTX-2) 체계 개발사업의 현황과 당면과제」이다.

각 주제는 한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주요 현안 문제로, 각 분야별로 현실태와 여건을 분석하여 당면한 문제점을 도출해 이를 근거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현안 정책 연구 보고서의 발전 방향 및 건의 내용이 정부관련 부처에서 채택되어 세계화로 향하는 자주국방의 구현과 기술선진국 진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98 방위력 개선 투자

'98

년도에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최소 필수사업을 요구하여 국회로부터 확정된 예산은 전년대비 7.8% 증가된 4조 2,886억원이다.

그러나, IMF 경제체제의 영향으로 환율이 급상승하여 1조~1조7,000억원 규모의 환차손 발생이 예상되며, 정부의 세입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축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추가적인 결손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98방위력개선 분야는 정상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국방부는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지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환차손 총당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전쟁도발 대비 종합 점검단 활동 마무리

- 총 43개 전쟁도발 대비 정책과제 도출

지난 해 8월 1일 발족 이후 국가전쟁 대비계획을 점검해온 「전쟁도발 대비 종합 점검단」이 총 43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12월 24일 「주요정책과제」 위주로 국무총리에 활동결과를 보고함으로써 5개월 간의 점검활동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종합점검단은 수도권 작전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전시대비태세의 취약점 보완 및 통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한시 조직으로 활동해왔으며, 군사대비태세와 정부지원계획간의 연계성, 실효성, 통합성에 주안을 두고 정책과제 도출 및 대안 마련에 주력해왔다.

그동안 종합점검단은 관련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대상 방문 및 토의, 을지 포커스렌즈 '97 연습 참여 및 점검, 「화랑훈련」, 「방

패훈련」, 「민방공훈련」과 같은 군사 및 정부 훈련 참관 등을 통해 전시대비태세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각 군 본부 방문 토의, 비기위 및 국방부 간부 토의, 정부부처 국장급 세미나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후 최종 정책과제를 확정하였다.

이날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주요정책과제」는 「국가위기관리제도 개선」, 「군사지휘체제 개선」, 「동원제도 보완」, 「화생방 방호대책 개선」 등 8개 과제이다.

종합점검단은 총 43개의 정책과제를 책자로 발간하여 관련 부처에 배부하되, 군사대비분야는 국방부에서, 정부지원분야는 비상기획위원회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건의하였다.

'97 제 8 차 방위력 개선 사업

이번 방위력 개선사업은 지난해 11월말 집행승인된 방위력개선 사업내용과, '97년도 집행 결과 종합 및 '98년도 방위력개선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소형 정찰 헬기」 「차기 전술 통신 체계(SPIDER)」 「지상 통신 ES/EA 장비」 「ACMI」 「전술 장비 보강」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6개 사업으로 약 3,000여 억원이 집행승인 되었다.

■ 소형 정찰 헬기 사업

소형 정찰 헬기는 중형 공격헬기와 편조로 표적획득 항공 정찰, 수색 및 엄호 등의 임무에 운용될 항공기로서, '00년까지 약 1,100여 억원을 투자하여 00대를 대우중공업이 기술도입 생

산할 예정이다.

대상기종은 독일제 BO-105(유로콥터社)로 주요성능은 최대속도 140KTS, 항속거리 220 NM이다.

■ 차기 전술 통신 체계(SPIDER) 사업

장차전에 대비하여 생존성, 신뢰성, 기동성이 향상된 통신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89년부터 국내 연구개발하여 작년 8월 전투용 사용자 관정을 받게됨에 따라 초도생산 2식을 위해 200여 억원이 집행승인 되었다.

■ 지상 통신 ES/EA 장비

적 통신망에 대한 방탄, 전파 방해 등 전자전



유로콥터사의 BO-105 소형 정찰 헬기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전자전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00년까지 약 400억원을 투자하여 주장비 00대 해외구매 및 운영부대를 창설할 예정이다. 주장비는 프랑스 톰슨사에서 제작한 장비이다.

■ **공중 전투 기동 장비(ACMI: Air Combat Maneuver Instrumentation)**

전투조종사의 실질적 공중 전투 기량 향상을 위한 공중 전투 기동 훈련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00년까지 약 500여 억원을 투자하여 주장비 1식을 해외구매하여 전력화 할 예정이다.

주장비는 미국 ICE사 제품이며, 동훈련체계를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전장환경에 적합한 공대공(공대지) 신전술 개발이 기대된다.

■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사업**

유인항공기의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적 중심 지역, 특수 작전 지역 상공의 공중 정찰 및 표적 획득을 위해 무인항공기를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89~'97. 5월간 기초연구 및 선행개발까지 완료하였으며, '00년까지 약 300여 억원을 투자하여 연구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동사업은 정부관리 업체주도 연구개발로 대우중공업이 주계약업체이다.

■ **전투장비 보강사업**

공군의 전투 장비 부족 소요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동형 폭탄 조립 장비, 항공기 전인차, 폭설 제거 차량, X-RAY장비 등 항공기 직접 지원 장비를 해외구매하기 위해 90여 억원이 승인 되었다.

■ **'97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집행결과 종합**

'97년도 방위력개선 예산은 '9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인 전년 대비 16% 증가한 3조9,700여 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1,540억원의 예산절감과 환차손보상 2,600억원, 물가상승에 따른 정산소요 880억원 등 약 5,000여 억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30여개 사업은 취소, 순연, 축소조정이 불가피 하였다.

'97년도 집행승인된 사업들을 전력별로 구분해 보면 지상전력분야는 「230밀리 다연장」 「저고도 탐지레이다」 「지휘용 장갑차」 「휴대용 대공 유도탄」 「소형 정찰 헬기」 「차기 AM/FM 무전기」 「불곰」 사업 등 72개 사업에 8,800여 억원이 집행승인 되었다.

해상 전력 분야는 「LYNX 2차」 「상륙함 건조」 「대공표적 예인기」 「P-3C 형상 식별 레이더」 「아산 기지 시설」 등 28개 사업 1,400여 억원이 집행승인 되었다.

공중 전력 분야는 「CN-235 중형 수송기」 「KTX-2」 「대공 제압 무인기」 「공중 기동 훈련장비(ACMI)」 「무인 경보 체계」 등 40개 사업 2,900여 억원이 집행승인 되었다.

연구 개발 분야는 「KTX-1 훈련 지원기」 「K-SAM」 「신형 155밀리 자주포」 등 45개 사업 3,200여 억원이 집행승인 되었다.